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허재홍[†]

한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취약성 요인들이 대학시기의 사회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취약성 요인으로는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을 상정하였고,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외상경험은 중재역할을 할 것이라는 완전매개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및 지방소재 대학 재학생 668명(남학생 235명, 여학생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은 자료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모형검증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외상경험 척도에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간에 차이가 나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각각에 대해 모형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본 연구에서 상정한 완전매개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상경험이 중재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별로 외상경험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눈 후 동일화 제약을 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 집단에서 외상경험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였다.

주요어 :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 사회불안

허재홍은 한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허재홍, 한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200-702)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
E-mail : oshoheo@hallym.ac.kr, Tel : 033-248-3034

사회불안은 낮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을 견디어 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회피한다(APA, 1994). 사회불안이 발생하면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허재홍, 조용래, 2005; Davidson, Hughes, George, & Blazer, 1993; Schneier, Johnson, Hornig, Liebowitz, & Weissman, 1992; Stein, Walker, & Forde, 1996), 만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Amies, Gelder, & Shaw, 1983; Ost, 1987), 이는 사회불안이 발생하면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사회불안으로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Bryant & Trower, 197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면접시험 상황이나 사교적인 모임 등 사회적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용래, 원호택, 1997). 이같은 사실은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불안으로 인해 학업이나 대인관계에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더욱이 학업문제와 대인관계 문제는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이고(권균, 최명식, 이민수, 최미경, 이경선, 2002; 유영권, 조영아, 서찬원, 장석진, 2003; 허재홍, 조용래, 2005; 조용래, 허재홍, 이민수, 이경선, 2005), 학업과 대인관계가 대학생들의 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김준곤,성한기, 이춘희, 박경자, 1999; 강혜원, 2003; 권정옥, 2003; 손충기, 1987; Elliott, Godshall, Shrout, & Witty, 1990; Macan, Shahani, Dipboye, & Amanda, 1990), 사회불안이 대학시기의 학업이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사회불안이 대학시

기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연구한 그간 연구들은 사회불안의 인지기제를 밝히고 효과검증을 한 연구들은 있어도(김은정, 1999; 이정윤, 1996; 조용래, 1997; 허재홍, 2005a), 사회불안의 취약성 요인들이 어떻게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유지시키는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불안의 취약성 요인들이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유지시키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의 취약성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으나, 사회불안이 발생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질특성, 성장과정의 가족환경, 그리고 사회상황에서 경험한 부정적 경험이다(오경자와 양윤란, 2003). 기질특성 가운데에는 ‘행동억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가족환경 가운데에는 ‘부모양육방식’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상황에서 경험한 부정적 경험은 수행상황이나 대인관계 상황에서 겪은 외상경험(trauma)이 관심 변인이다. 이 세 변인이 주목을 받는 것은 각 변인이 사회불안을 이해하는데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성장환경, 그리고 사회경험을 잘 대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행동억제기질(behavioral inhibition)이란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사람, 또는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성향을 말한다. 행동억제기질은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Mick & Telch, 1998). 특히 여러 연구들은 행동억제기질이 청소년기 사회불안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하고 있는데(Chess & Thomas, 1999; Hayward, Killen, Kraemer, & Taylor, 1998; Taylor, 1998; Schwartz,

Snidman, & Kagan, 1999), 이들 연구들에서는 행동억제기질이 안정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이 연구들에서는 행동억제기질이 연령의 증가와 상관없이 사회불안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행동억제기질이 지능이나 대처전략 등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나(Asendorpf, 1994; Rosenbaum, 1997),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에서도 높은 행동억제성향을 보이는 집단 중 상당수는 심각한 사회불안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Schwartz, Snidman, & Kagan, 1999) 행동억제기질이 안정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같은 사실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 및 유지기제를 연구한 오경자와 양윤란의 연구(2003)에서도 입증되었다. 행동억제기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사회불안에는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고등학교 시기의 사회불안에는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자와 양윤란의 모형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의 발생기제를 재검증해 본 허재홍의 연구(2005b)에서도 행동억제기질은 대학시기의 사회불안에는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행동억제기질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변한다는 연구(Kagan & Snidman, 1991)와도 같은 맥락인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질요인의 영향력은 지능이나 대처전략 등 환경요인의 영향으로 크기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학시기를 넘으면 기질보다는 환경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행동억제기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사회불안은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시기 이후의 사회불안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부모들은 사회불안이 없는 사람들의 부모와 다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부모는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Arrindell, Emmelkamp, Monsma, & Brilman, 1983; Arrindell, Kwee, Methorst, Van Der Ende, Pol, & Moritz, 1989;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Parker, 1979), 특히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더 거부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rindell, et al., 1989; Parker, 1979). 또한 Bruch, Heimberg, Berger와 Collins(1989)의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부모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Bruch와 Heimberg(1994)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를 회고하도록 하게 하여 연구한 결과이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사회불안이 있는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회피행동을 강화하고 용기있는 행동을 막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uss(1980)는 이러한 가족환경이 모든 유형의 사회불안에 공통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지만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온 연구들도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오경자와 양윤란의 연구(2003)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

로 한 연구(허재홍, 2005b)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오경자와 양윤란은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기 보다는 다른 변인을 매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사회불안장애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외상경험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st, 1985). 연구들에 따르면 성인 사회불안장애 환자집단의 57%는 외상경험에 의한 조건화가 사회불안장애의 직접 계기가 되었다고 믿었으며, 58%는 실제 조건화가 일어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Ost, 1981; Ost, 1987). 또한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44%가 사회불안장애와 관련된 외상경험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Sternberger, Turner, Beidel, & Calboun, 1995). 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사회불안장애 집단을 조사한 Hackerman의 연구(2003)에서도 50%이상의 환자들이 외상경험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오경자와 양윤란의 연구(2003)에서도 확인되었다. 외상경험은 초등학교 시기의 사회불안에는 설명력이 없었으나, 청소년기 이후의 사회불안에는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허재홍의 연구(2005b)에서도 입증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이 특별한 외상경험을 보고하고 있고, 사회불안에 외상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Ost와 Hugdahl의 연구(1981)에서는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15%는 특별한 외상경험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10%는 간접적

으로 얻게 된 정보로 외상경험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Hackermann의 연구결과에서도 비록 50% 이상 환자들이 외상경험을 보고하고 있으나 외상경험을 보고하지 않은 환자들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상경험 연구들을 개관해 보면 외상경험이 청소년기 이후 사회불안을 많이 설명해 주는 것은 사실이나 외상경험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외상경험만으로 모든 사회불안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외상경험이 있는(혹은 많은) 집단과 외상경험이 없는(혹은 별로 없는) 집단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불안의 취약성 요인이라고 주목받아온 부모양육태도, 행동억제기질, 그리고 외상경험을 검토해 본 결과, 부모양육태도는 어떤 변인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행동억제기질은 청소년기 이후 사회불안을 설명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상경험은 외상경험이 있는 집단은 외상경험으로 사회불안을 잘 설명할 수 있으나 외상경험이 없는 집단은 외상경험만으로 사회불안을 설명하기는 힘든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양육태도는 어떤 변인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영향의 크기는 외상경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상경험은 부모양육태도가 어떤 변인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완벽주의를 가정하였다. 완벽주의는 불안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Antony, Huta, & Swinson,

1998; Flett, Hewitt, & Dyck, 1989), 특히 사회공포증과 강박장애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afran & Manshell, 2001).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비임상집단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Saboonchi & Lundh, 1997),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lett, Hewitt, & DeRosa, 199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못 맺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lett, Hewitt, Garshowitz, & Thomas, 1997). 임상집단의 경우에도 비임상집단과 마찬가지로 완벽주의 성향은 사회불안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임상집단에 비해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Juster, Heimberg, Frost, & Holt, 1996; Saboonchi, Lundh, & Ost, 1999). 특히 완벽주의는 방향성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3)보다는 성격적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6)가 더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윤, 조영

아, 2001). 그리고 MPS-6 하위 척도 가운데에는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비난’,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의심’ 척도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과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 간 차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지 않다. 하지만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부모가 엄격하다고 평가할수록 완벽성향이 높았고(Frost, Lahart, Rosenblate, 1991), 부모가 엄격하고 처벌을 많이 하고 과잉통제할수록 자녀는 완벽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lett, Hewitt, Singer, 1995). 이러한 결과는 유미숙, 하은혜와 김혜진(2004)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그리고 외상경험과 사회불안 간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외상경험은 중재역할을 한다는 모형을 상정하였다. 이 모형의 측정변인과 이론변인간 관계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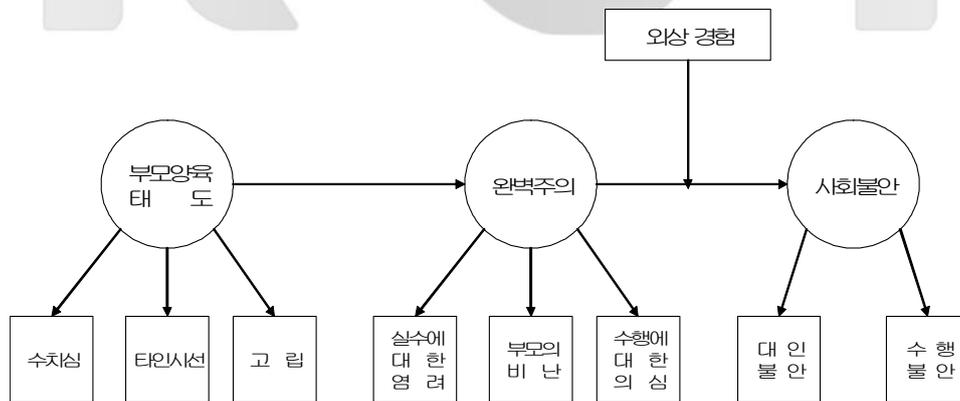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 모형

방 법

연구 대상자

2006년도 1학기에 서울 및 지방소재 대학의 심리학과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8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668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남학생은 235명(35.2%)이었고, 여학생은 427명(63.9%)이었다. 성별을 기입하지 않은 사람은 6명(0.9%)이었다. 연령은 남학생이 평균 20.7세(표준편차=2.6)였고, 여학생은 19.6세(표준편차=1.7)이었다.

검사도구

사회불안 척도

사회불안은 대인관계 불안과 수행불안을 측정하였고, 이를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SIAS)와 사회공포증 척도(SPS)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Social Interactive Anxiety Scale: SIAS): Mattick과 Clarke,(1998)이 개발한 척도로서 대인관계에서 대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1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0)의 연구에서 번안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향숙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가 .87이었다.

사회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 Mattick과 Clarke(1998)이 개발한 척도로서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겪는 주시불안, 혹은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행불안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도 김향숙(2000)이 번안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향숙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가족 양육환경 질문지(Family Environmental Questionnaire: FEQ)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Caster, Inderbitzen와 Hope(1999)가 개발한 가족환경 질문지를 오경자와 양윤란(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FEQ는 성인기에 아동기 가족 환경을 회고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Parent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Scale(PATCS: Bruch, Hiemberg, Berger, & Collins, 1989)의 문항들을 수정하여 청소년들이 현재 시점에서 부모에 대한 지각을 보고하도록 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FEQ는 총 19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한 문항을 부모 각각에 대해서 질문한다. FEQ 자료를 요인분석해 본 결과 요인은 자녀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인(수치심 요인), 자녀 양육태도에 있어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도록 하는 요인(타인시선 요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기피하도록 하는 요인(고립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소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아버지 자료는 .66, .61, .54, 어머니 자료는 .67, .65, .55였다.

외상경험 질문지

사회불안과 관련된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경자와 양윤란(2003)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상황에서 경험한 외상경험을 측정하는 총 10개 문항들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외상경험 척도는 대인관계 관련 외상 경험과 특별한 수행상황 관련 외상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자와 양윤란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0, .54였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0,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 평가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Frost, Martin, Lahart와 Rosenblate.(1990)이 개발하고 현진원(1992)이 변안한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으로 되어 있다. 하위척도로는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 '개인의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가 있다. 이 가운데 사회불안과 관련있는 변인은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 '부모의 비난',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의심'인 것으로 밝혀져(이정윤과 조영아, 2001), 본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 하위척도만 사용하였다. 현진원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인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84, '부모의 비난'이 .66, '수행에 대한 의심'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은 SPSS 11.5를 사용하였고 모형 검증은 AMOS 4.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가족 양육 환경 질문지 하위 척도 가운데 '수치심' 요인의 부모자료 상관은 $r_{\{(668)\}}=.71$ ($p<.001$), '타인시선' 요인의 부모자료 상관은 $r_{\{(668)\}}=.89$ ($p<.001$), 그리고 '고립' 요인의 부모자료 상관은 $r_{\{(668)\}}=.77$ ($p<.001$)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간 양육태도를 비교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형 검증을 위한 분석에서는 어머니 자료만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는 χ^2 , CFI, TLI, NFI, RMSEA를 사용하였다. χ^2 은 사례 수에 너무 민감하여 신빙성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모형들 간의 비교가 가능한 통계치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다(정승아, 2004). CFI, TLI, NFI는 0인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고, 1인 경우 완전히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 .90이 넘으면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한다. RMSEA는 .05 이하면 좋은 모형으로, 그리고 .08 이하면 적절한 모형으로 간주하며, .10 이상이면 그 모형은 채택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홍세희, 2001).

결 과

주요변인의 평균과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측정변인들 간 평균과 상관관계를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측정변인들의 평균을 보면, 부모양육태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안은 표준편차

척도	하위요인	남(n=235)	여(n=427)	전체(n=662)	t
부모양육 태도	수치심	7.0 (3.2)	6.5 (3.0)	6.7 (3.0)	2.1*
	타인시선	12.1 (3.3)	12.1 (3.0)	12.1 (3.1)	.2
	고립	8.8 (2.8)	8.3 (2.7)	8.5 (2.7)	2.2*
완벽주의	실수에 대한 염려	24.4 (6.3)	24.5 (6.1)	24.5 (6.2)	-.1
	부모의 비난	8.0 (2.8)	7.9 (2.5)	8.0 (2.6)	.7
	수행에 대한 의심	11.5 (3.1)	11.4 (2.8)	11.5 (2.9)	.6
사회불안	관계불안	26.7 (13.6)	25.4 (11.5)	25.9 (12.3)	1.2
	수행불안	14.9 (12.6)	15.4 (10.9)	15.2 (11.5)	-.5
외상경험	-	12.1 (10.4)	15.0 (8.7)	9.6 (9.4)	-3.0**

* $p < .05$, ** $p < .01$

표 2. 주요 변인들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부모양육 태도	1. 수치심							
	2. 타인시선	.30***						
	3. 고립	.23***	.30***					
	4. 실수에 대한 염려	.18***	.39***	.28***				
완벽주의	5. 부모의 비난	.26***	.25***	.32***	.49***			
	6. 수행에 대한 의심	.18***	.30***	.24***	.54***	.35***		
사회불안	7. 관계불안	.16***	.19***	.29***	.38***	.35***	.36***	
	8. 수행불안	.23***	.22***	.28***	.39***	.35***	.37***	.73***
외상경험	-	.09*	-.05	-.02	.00	.01	.13**	-.09*

* $p < .05$, ** $p < .01$, *** $p < .001$

도에서 ‘수치심’과 ‘고립’ 요인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치심: $t=2.1$, $p < .05$; 고립: $t=2.2$, $p < .05$), 외상경험도 여학생 집단과 남학생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7$,

$p < .001$)(표 1). 측정변인들간 상관관계는 모든 측정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양육태도 하위척도 중 ‘수치심’의 경우에는 완벽주의 하위척도 중 ‘실수에 대한 염려’나 ‘수행에 대한 의심’, 그리고

사회불안 하위척도 중 ‘관계불안’과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 하위척도 중 ‘타인시선’의 경우에도 사회불안 하위척도 중 ‘관계불안’과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상경험의 경우에는 ‘수행에 대한 의심’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변인들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성별에서 부모양육태도 중 ‘수치심’과 ‘고립’, 그리고 ‘외상경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구조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이론 변인을 구성하는 이론 변인과 측정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적절한 지 검증하였다. 성별 각 집단별로 모형 적합도

표 3.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square	df	CFI	TLI	NFI	RMSEA(90% CI)
남 (n=235)	32.3	17	.997	.993	.993	.062(.028~.094)
여 (n=427)	42.1	17	.997	.994	.995	.059(.037~.082)

주. CFI: the comparative fit index; TLI: the Tucker-Lewis index; NFI: the normed fit index; RMSEA: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 4.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 모형의 주요 구인간 상관

			표준화 계수	
			남(n=235)	여(n=427)
부모양육태도	↔	완벽주의	.68	.79
완벽주의	↔	사회불안	.67	.58
부모양육태도	↔	사회불안	.33	.60
부모양육태도	→	수치심	.43***	.44***
부모양육태도	→	타인시선	.64***	.61***
부모양육태도	→	고립	.56***	.49***
완벽주의	→	실수에 대한 염려	.77***	.66***
완벽주의	→	부모의 비난	.52***	.79***
완벽주의	→	수행에 대한 의심	.72***	.63***
사회불안	→	관계불안	.93***	.80***
사회불안	→	수행불안	.84***	.88***

*** p<.001

지수는 표 3에, 주요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성별로 측정구조 모형을 검증해 본 결과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론변인과 측정 변수들 간 관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 각 집단을 외상척도 점수가 높은 집단(상위 30%)과 낮은 집단(하위 30%)으로 나누어 모형을 검증하였다.

남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검증

남학생 집단에서 외상이 높은 집단은 외상척도 점수가 평균 26.7, 표준편차 3.4였고, 외상이 낮은 집단은 평균 4.2, 표준편차 5.8이었다.

외상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 검증

남학생 집단 중 외상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모형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본 연구의 모형(완전매개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df=18, N=84)=28.1, p>.05$; CFI=.994; TLI=.988; NFI=.984; RMSEA=.082). 대안모형을 살펴본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부분매개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chi^2(df=17, N=84)=27.4, p>.05$; CFI=.994; TLI=.987; NFI=.984; RMSEA=.086), 부모양육태도와 완벽주의가 독립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단순효과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df=18, N=84)=38.7, p<.01$; CFI=.988; TLI=.976; NFI=.978; RMSEA=.118).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7, p>.05$). 부분매개모형의 경우 부모양육태도에서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t=-.8, p>.05$),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이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그림 2).

외상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 검증

다음으로 남학생 중 외상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모형검증하였다. 그 결과 외상이 낮은 집단에서도 본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df=18, N=76)=21.8, p>.05$; CFI=.997; TLI=.995; NFI=.985; RMSEA=.053). 대안모형을 살펴본 결과 부분매개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chi^2(df=17, N=76)=21.1, p>.05$; CFI=.997;



그림 2. 외상 높은 집단의 모형(남학생 집단)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t검증치, *** $p<.001$

TLI=.994; NFI=.985; RMSEA=.057), 단순효과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18, N=76)=35.5, p<.01$; CFI=.985; TLI=.970; NFI=.973; RMSEA=.123).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7, p>.05$). 부분매개모형의 경우 부모양육태도에 서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t=-.8, p>.05$),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미친다는 본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이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그림 3).

외상경험의 중재효과 검증

다음으로 외상경험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외상척도 점수 고저 집단별로 각 이론변인간의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하고 동일화 제약을 하기 전 기저모형과 카이제곱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는

두 가지 경로(부모양육태도→완벽주의, 완벽주의→사회불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가 없었다. 따라서 남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부모양육태도는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상의 크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 검증

여학생 집단에서 외상이 높은 집단은 외상 척도 점수가 평균 24.6, 표준편차 3.6이었고, 외상이 낮은 집단은 평균 7.5, 표준편차 6.5이었다.

외상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 검증

여학생 중 외상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모형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18, N=144)=40.9, p<.05$; CFI=.993; TLI=.985; NFI=.987; RMSEA=.094). 대안모형을 살펴본 결과 부분매개모형은 대체로



그림 3. 외상 낮은 집단의 모형(남학생 집단)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t검증치, *** $p<.001$



그림 4. 외상 높은 집단의 모형(여학생 집단)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t검증치, *** $p<.001$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X^2 ($df=17, N=144$) = 39.7, $p < .01$; CFI=.993; TLI=.985; NFI=.987; RMSEA=.097), 단순효과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X^2 ($df=18, N=144$) = 38.5, $p < .001$; CFI=.985; TLI=.970; NFI=.973; RMSEA=.123).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elta X^2=3$, $p > .05$), 부분매개모형의 경우 부모양육태도에서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t=1.2$, $p > .05$),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 미친다는 본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이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그림 4).

외상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 검증

여학생 집단 가운데 외상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모형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X^2 ($df=18, N=124$) = 33.7, $p < .05$; CFI=.994; TLI=.987; NFI=.986; RMSEA=.084) 대안모형을 살펴본 결과, 부분매개모형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X^2 ($df=17, N=124$) = 31.5, $p < .05$; CFI=.994; TLI=.987; NFI=.987; RMSEA=.083), 단순효과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X^2 ($df=18, N=124$) = 38.5, $p < .01$; CFI=.985; TLI=.970; NFI=.973; RMSEA=.123).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Delta X^2=2.2$ ($p > .05$)로서, 두 모형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이 결과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그림 5).

외상경험의 중재효과 검증

다음으로 외상경험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외상척도 점수 고-저 집단별로 각 이론변인간의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하고 동일화 제약을 하기 전 기저모형과 카이제곱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학생 집단에서는 두 가지 경로(부모양육태도→완벽주의, 완벽주의→사회불안) 중 완벽주의에서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만 .05의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났다($X^2_{diff}=5.2$, $df_{diff}=1$, $p < .05$). 이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외상경험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외상경험이 클수록 더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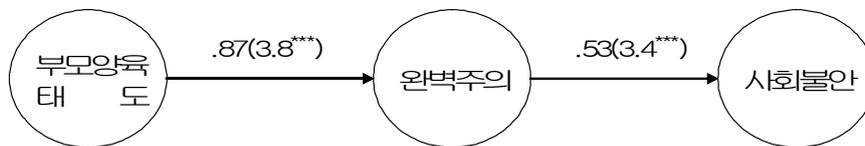


그림 5. 외상 낮은 집단의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t검증치,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취약요인들이 대학시기의 사회불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외상경험은 중재역할을 한다는 모형을 상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별로 외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모형을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 적용해 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부모양육태도는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오경자와 양윤란, 2003; 허재홍, 2005)과 같은 결과이다.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서구에서 연구된 자료들은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반면, 연구결과가 많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자료(오경자와 양윤란, 2005; 허재홍, 2005b)에서는 직접 영향은 없고 간접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이 결과의 원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서구 자료에서는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이 없는 사람들의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를 비교한 반면 우리나라 자료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검증하였다. 본 연구자료에서도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이 낮은 사

람들의 부모양육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간에는 .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서구 자료를 가지고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형 검증하여 우리나라 자료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문화 차이로 인해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부모양육태도는 수치심, 타인시선, 고립이었다. 자녀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는 양육태도는 자기고양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조공호, 2003)에서는 자녀들에게 사회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관계형성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같은 부모양육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문화권에 따라 지각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Rohner & Pettengill, 1985), 서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부모양육태도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불안을 직접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부모양육태도는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 완벽주의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접근에서는 완벽주의를 중요한 인지도식 중 하나로 간주하고, 이 인지도식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조용래, 1997; Clark & Wells, 1995). 본 연구결과는 사회불안 치료에서 완벽주의를 줄이는 개입전략이 왜 중요한가를 이론적으로 밝혔다고 하겠다. 또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밝힌 기존 연구들(이정운과 조영아, 2001;

Flett, Hewitt, & DeRosa, 1996; Flett, Hewitt, Garshowitz, & Thomas, 1997; Juster, Heimberg, Frost, & Holt, 1996; Saboonchi & Lundh, 1997; Saboonchi, Lundh, & Ost, 1999)이 완벽주의가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 밝힌 반면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사회불안 발생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완벽주의가 사회불안 발생 및 유지에서 하는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였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외상경험은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완벽주의를 매개로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외상경험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여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외상경험이 있을 때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외상경험이 있을 경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큰 사회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사회불안을 치료할 때 완벽주의와 같은 인지요인을 감소시키는 개입전략도 중요하지만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외상경험을 직접 다루는 개입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그리고 외상경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취약요인들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이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나 완벽주의와 사회불안간 관계 등 부분적인 관계만 밝힌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들 변인간

관계를 정교화하였다. 또한 사회불안 치료에서 인지요인 외에 외상경험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사회불안 치료에서 인지요인만을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허재홍, 2005a)와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가 위와 같은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기제를 밝히면서 대상을 대학생 일반집단에만 국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생 중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집단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완벽주의를 가정하였다.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데 있어서 다른 변인도 매개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다른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문화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원 (1998). 학업에 대한 성패귀인, 자기효능 및 내적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2, 85-108.
- 권균, 최명식, 이민수, 최미경, 이경선 (2002). 한림대학교 재학생의 생활, 학업, 과외활동. *한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 권정옥 (2003).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연구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접근. *동서정신과학*, 6, 303-319.
- 김은정 (1999). *사회공포증 집단의 사회적 자기처리와 안전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 논문.
- 김준곤, 성한기, 이춘희, 박경자 (1991). 대학생
활 만족의 구성요인가 예언요인. 한국심
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4, 154-167.
- 김향숙 (2000). 사회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 편
향. 미발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충기 (1987). 중고등학생의 정의적 행동특성.
원광대 논문집, 21, 145-176.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
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
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55(3), 557-
576.
- 유미숙, 하은혜, 김혜진 (2004). 완벽주의 성향
의 발달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3), 425-444.
- 유영권, 조영아, 서찬원, 장석진 (2003). 신입생
진료의식 연구. 연세상담연구, 19, 27-
50.
- 이정운 (1996). 사회불안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이정운, 조영아(2001). 사회공포증과 완벽주의
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3(2), 93-104.
- 정승아 (2004).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
을 미치는 기제. 미발표 연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조궁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
남출판.
- 조용래 (1997). 역기능적 신념과 자동적 사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미발표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용래, 김은정, 원호택 (1997). 대인불안에 대
한 인지적 평가(II): 한국판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자기 진술 검사의 신뢰도
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233-249.
- 조용래, 허재홍 (2004). 2004학년도 신입생 실
태조사. 한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 조용래, 허재홍, 이민수, 이경선 (2005). 우리학
교 재학생의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 허재홍, 조용래 (2005).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
이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5(2), 85-100.
- 허재홍 (2005a). 자율신경계 신체반응, 인지와
정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83-
1002.
- 허재홍 (2005b). 대학시기 사회불안 발생의 심
리적 기제: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학생생활연구, 17,
71-85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
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ntony, M. M., Huta, V., & Swinson, R. P.
(1998).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cross
the anxiety disorder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1143-1154.
- Arrindell, W. A., Emmelkamp, P. M. G.,
Monsma, A., & Brilman, E. (1983). The
role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practices
in the etiology of phobic disorders: A
controlled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3, 183-187.

- Arrindell, W. A., Kwee, M. G. T., Methorst, G. J., Van Der Ende, J., Pol, E., & Moritz, B. J. M. (1989).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of agoraphobic and socially phobic inpatient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526-535.
- Asendorpf, J. B. (1994). The malleability of behavioral inhibition: A study of individual developmental fun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12-919.
-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 57-63.
- Bryant, B. M., & Trower, P. E. (1974). Social difficulty in a student sampl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4*, 13-21.
- Buss, A. H.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Freeman.
- Caster, J., Inderbitzen, H., & Hope, D. (1979). The development of embarrassment. *Journal of Personality*, *103*, 227-230.
- Davidson, J. R., Hughes, D. L., George, L. K., & Blazer, D. G. (1993). The epidemiology of social phobia: Findings from the Duke Epidemiological Catchment Area
- Elliott, T. R., Godshall, F., Shrout, J. R., & Witty, T. E. (1990). Problem-Solving Appraisal, Self-Reported Study Habits, and Performance of Academically At-Risk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2), 203-207.
- Flett, G. L., Hewitt, P. L., & DeRosa, T.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143-150.
- Flett, G. L., Hewitt, P. L., & Singer, A. (1995). Perfectionism and parental authority styles. *Individual Psychology*, *51*, 50-60.
- Flett, G. L., Hewitt, P. L., Garshowitz, M., & Thomas, M. R. (1997). Personality, negative social interac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9*, 28-37.
- Frost, R. O., Lahart, C. M., & Rosenblate, R. (1991). The development of perfectionism: A study of daughters and their parents. *Cognitive Therapy & Research*, *15*, 469-489.
- Frost, R. O., Martin, P. A.,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Hackermann, A., Clark, D. M., & McManus, F. (2000). Recurrent images and early memories in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8*, 601-610.
- Hayward, C., Killen, J. D., Kraemer, H. C., & Taylor, C. B. (1998). Linking self-reported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to adolescent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7*(12), 1308-1316.
- Hirshfeld, D. R., Biederman, J., & Brody, L., Faraone, S., Rosenbaum, J. F. (1997). Associations between expressed emotion and child behavioral inhibition and psychopathology: A pilot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2), 205-213.
- Juster, H. R., Heimberg, R. G., Frost, R. O., &

- Holt, C. S. (1996). Social phobia and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 403-410.
- Kagan, J., & Snidman, N. (1991a). Infant predictors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profiles. *Psychological Science, 2*, 40-44.
- Kagan, J., & Snidman, N. (1991b). Temperamental factors in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6*, 856-862.
- Macan, T. H., Shahani, C., Dipboye, R. L., & Amanda, P.P.(1990). College students' time man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4), 760-768.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 of social phobia and scrutin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Mattick, R. P., Peters, L., & Clark, J. C. (1989). Exposure and cognitive restructuring for social phobia: A controlled study. *Behavior Therapy, 20*, 3-23.
- Mick, M., & Telch, M.(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1-20.
- Ost, L.-G. (1985). Ways of acquiring phobias and outcome of behavioral treatm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3*, 683-689.
- Ost, L.-G. (1987a). Age of onset in different phobia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223-229.
- Ost, L.-G., & Hugdahl, K. (1981). Acquisition of phobia and anxiety responses patterns in clinical pati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1*, 245-252.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a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aboonchi, F., & Lundh, L-G. (1997). Perfectionism self-consciousness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 921-928.
- Saboonchi, F., Lundh, L-G., & Ost, L. (1999).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ness in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7*, 799-808.
- Schneier F. R., Johnson, J., Hornig, C. D., Liebowitz, M. R., & Weissman, M. M. (1992). Social phobia: Comorbidity and morbidity in an epidemiological sam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 282-288.
- Schwartz, C. E., & Snidman, N.,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8), 1008-1015.
- Shafraan, R., & Mansell, W. (2001). Perfectionism and psychopathology: A review of research and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6), 879-906.
- Stein, M. B., Wallker, J. R., & Forde, D. R. (1996). Public speaking fears in a community sample: Prevalence impact on functioning and diagnostic classif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69-174.
- Sternberger, R. T., Turner, S. M., Beidel, D. C., & Calhoun, K. S. (1995). Social phobia: An

analysis of possible development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526-531.

원 고 접 수 일 : 2006. 6. 14

수정원고접수일 : 2006. 7. 23

게 재 결 정 일 : 2006. 8. 11

K C I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 perfectionism, and traumatic experience on social anxiety

Jae-hong Heo

Counseling center in Hallym University

The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on social anxiety suggests that parenting style, perfectionism and traumatic experience are important factors to explaining the causal mechanisms of adolescents' or college students' social anxiety.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investigating the relation between the factors integrally. Based on previous studies a full mediation model was proposed. This model hypothesized that parenting style would predict social anxiety through full mediation of perfectionism and the traumatic experience moderated the prediction. This model was evaluated from a sample of 668 university student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SEM revealed that parenting style predicted social anxiety by the mediation of perfectionism and traumatic experience moderated the effect of the full mediation model.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as discussed.

Key words : social anxiety, parenting style, perfectionism, traumatic experience